



《한국출판의 이해》 펴낸 다산출판사 강희일 대표

출판, 문화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해마다 수를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출판의 ABC를 알려주는 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무하다고 해야 옳다. 이런 때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출판가에 전해졌다. 다산출판사 강희일 대표가 한국의 출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출판 안내서를 선보인 것이다. 강희일 대표는 인터뷰 내내 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때로는 출판계와 정부에 대한 쓴소리들을 쏟아놓았다. 책에서 못다 한 출판에 대한 애정을 일문일답을 통해 확인해 보자.

먼저 책의 집필 동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출판계에서 40여년 일한 경험을 토대로 출판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뜻에서 용기를 낸 겁니다. 학교(서경대)에서 출판편집실무를 강의하면서 강의 자료를 모은 것이 한 권의 책이 된 것이죠. 학교에서 수년간 고(故) 김성재 선생의 《출판의 이론과 실제》로 강의했는데, 달라진 출판환경에 대한 첨가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전에 그분이 저에게 그 부분을 보충해 보라고 하신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출판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판에 관련된 다양한 책이 출간되었지만, 그 전반적인 내용이 출판 실무 전체를 다룬 책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 이죠. 그러니 출판 관련 종사자들이나 출판학과 학생들, 그리고 출판에 뜻을 둔 사람들에 대한 안내서가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최근 출판계 경향은 기획과 편집, 영업, 디자인 등으로 전문화되는 추세이지만, 한 권의 책이 나오고 그것이 독자들이 손에 쥐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안다면 좀더 사명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출판의 본령을 다시금 상기하자는 측면에서도 제 책이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달라진 출판 환경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점에 역점을 많이 두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골고루 애정을 쏟았지만 과거에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더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최근 출판 흐름이 기획을 강조하고 있어서 ‘출판기획’ 부분에 확대했습니다. 또 출판정책



부분과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구조적 연관성, 저작권법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구조적 연관성에 대해 좀더 설명해 주시죠.

이웃 일본만 해도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교류는 매우 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판계는 도서관들이 적극적으로 책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도서관은 출판계가 납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죠. 출판계는 전국에 있는 잠재적 독자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도서관인 것을 깨닫고 그동안 가졌던 부정적 편견이나 무관심에서 벗어나 도서관계와 협력해야 합니다.

한편 도서관계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양서를 선정한 후 일정량의 기본부수를 구입하여 비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작자나 출판사는 출판비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되므로 여유 있는 재투자로 지속적인 출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 10대 출판 강국을 자랑하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양질의 책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출판계의 전문적 기획력, 우수인력 양성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정부 당국의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출판량의 6~7% 정도를 차지하는 세계 10대 출판국이지만 양적인 측면에 비해 질적으로는 출판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업체규모의 영세성과 분산성, 자원낭비형 유통구조로 인해 물류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등 취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 요인으로는 출판이 문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8%나 되는데도 그보다 작은 게임(8.6%), 영화(5.3%)에 비해 형편없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판진흥원 문제도 표류하고 있고, 정부의 출판산업진흥정책조차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책에 정부의 출판정책에 대한 강한 주문을 담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판산업은 한 나라의 지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러니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출판산업을 문화전략의 중심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출판산업의 선진화와 정보화, 세계화를 출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출판산업이 후진성과 비효율성, 편중성 등에서 벗어나 국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출판계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최근 (주)디지털 전문도서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으셨습니다.

국내 전자책 시장의 경우 2006년 1,400억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지만 북토피아, 교보문고 등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기관납품 시장에서의 덤핑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검색 또한 저작권자, 출판사들의 권리와 요구는 배제된 채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업체들의 필요에 따라 본문 내용을 보여주는 범위와 방식이 제각각이었고요.

이대로 가다간 디지털 출판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가 출판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저작권자,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한 출판사들이 먼저 모여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출판계에 종사하는, 혹은 입문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유용한 안내서를 내셨는데요, 향후 계획을 마무리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출판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됩니다. 계속 보완하면서 좋은 책이 되도록,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구요. 한국 출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데 새로운 전망을 조금이라도 제시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